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朝鮮統治問題에對한論議
日本人士의自覺

朝鮮統治問題는 本來重大問題라 東洋의大問題요 世界의懸案이라 吾人은日本의統治에對하야 依然히그根本義를問하기를 不已하거니와 一般日本人士의 此問題에關한見解는 問或發表한바를見하면 寥々貧弱한것은勿論이오 實로皮相의見이多한것은 吾人이常히 慨嘆하는바로다 그런데近來에朝鮮爆彈事件이 頻々히突發한後 그直接間接의影響이 不尠하거니와 就中에도日本人士의朝鮮統治論이 盛行함은 頗히注目할現象이로다. 吾人은그論議의各細點을 玆에枚擧하기는不遑하거니와 最近의日本社會主義一派의 殖民地解放論을爲始하야 各新聞雜誌의言論機關에 各種의片影을散見하겟도다 吾人이玆에 그論旨의骨子를一々히批判키는難하나左右間大體로보아 日本의殖民地統治觀念이 漸次動搖할것은 吾人의斷言不諱할바가아닌가 다만以上의言論이 一時的興奮에서出치아니하고 今後그盛旺에至하기를 切望하는바로다 元來朝鮮統治의眞相은 所謂九重雲闕의深奧裡에 閉鎖된觀이有하야 容易히外部의推摩臆測을 不許한지라 그結果一般人士의各自流發的 朝鮮統治論이 果然그正鵠을得한者 幾何人인가이것이都是 朝鮮總督府의模糊曖昧한黑幕에依커니와 日本의一般人士가朝鮮統治의 根本義를論究함도 甚히容易할뿐만아니라 그論點의立脚이 往々朝鮮總督府當局者의 宣傳에附和雷同하야 所謂群盲撫象의感이有한것은 決코吾人의誣言이아닐지라 吾人은 이點에잇서日本人士의警戒를 要望하는바어니와以上 宣傳方略의 代表的一例로 今月 大陽雜誌에發表한 高橋芳君의 文化政治論을一考코자하는도다 高橋氏의立地가朝鮮總督府의 代辯人인것은이제다시吾人의 屢々를不要할바어니와 該氏의 論法이 如何히事實을誣하야 그特殊한曲辯을 弄한것을可知할바로다 該氏의主張이 이러하도다 大正八年에現齋藤總督이 印綬를帶하고赴任한劈頭에 高唱力說한所謂 文化政治의本義는何에在한가하면 今日朝鮮의時局이 平和에歸한것도 即文化政治의威力이오 米國의誤解가一掃한것도 文化政治의功이로다 또 朝鮮의現今有識階級이 朝鮮統治의根本義가 文化政治에在한것을 確信하고 一點의疑念을挿치안는도다 故로朝鮮現下의統治方針은 文化政治에確在한것을 斷言하얏도다 그러면所謂文化政治의內容은 如何한가 文化政治의第一意義는 政治施行의氣分과方式에 關한것이니 即이意味의 文化政治는武斷官僚主義에正反對인觀念이라 制度上으로는 文官도總督될수잇는것과 一般官吏가制服을脫하고 佩劍을解하는類等이라 第二의文化的意味는 日本人의有한文化는 朝鮮人文化에數倍優越하다는信念下에 高尙한日本人文化를 朝鮮에輸入移植하야 朝鮮人의啓發에 努力할點이라 이와가치 朝鮮人이高度의文化를 享有함에至하면 眞正한理解(政治的及社會的)가生할것이니이와갓흔 眞正한理解를通하야 自發的으로朝鮮問題는終極의解決에 至할것이라 故로日本人의優越한 學術道德藝術政治經濟의 諸能力을把持하고 朝鮮人의頭腦를啓發하며朝鮮의自然을開拓하야 朝鮮人의精神的 物質的 兩方面을日本과갓흔程度의 高尙한文化를享有케하면 日鮮兩民族의能力이 平均케될것이며 日鮮兩地의自然的生産力이 同一水準에達할것이라 이와가치文化의程度가 均一케되면 現在日本人有識階級이 抱懷하는程度의信念 即 朝鮮의將來와朝鮮人의將來 또는日鮮兩民族間의 眞正한關係에對하야 同一한理解力을持케될것이니 이것이所謂日鮮融合이라하는根本義를實現하는것이라하얏도다 그런고로以上의文化政治는 朝鮮總督府의根本義일뿐만아니라 實로古今東西의 至上最善한方針이라고까지 力說하얏도다 吾人은 以上該論者의孟浪杜撰한論法에對하야 喫驚不已할바어니와 더욱히古今東西의至上最善의 方針이라 斷言한것은 實로噴飯一笑를 不禁할바로다 吾人이玆에 以上의論點에對하야 批判을下할餘裕가無하거니와 要컨대朝鮮總督府의宣傳方略이 如何히世人의耳目을眩惑한것을 一摘하면足하도다 要컨대 政治는須히 公明正大의立地에 基礎할바이니批判이無한 朝鮮의統治問題는 果然무엇이라此를評할가

中國思想界의新現象(十)

愚樵(譯)

共和政治와孔學(續)

●道統學者의說● 余(小山)는共和와孔學의項을擧함에 이르러서 現代中國에가장現著한 小乘儒敎의例로昨年末에上海에서死去한 沈子培一派의復辟論者學說을紹介할必要가잇다고生覺한다 再昨年四月上海를中心으로하야 復辟謠言이四方에傳播됨을보고 그出處를調査하야 五個의造謠動因을擧하얏고其中第三으로淸朝遺臣及在中日本人一部에依하야主張되는大義名分論을擧하야 이것은畢竟時代의大勢나 或은中國에共和가適當한지 帝政이適當한지 適不適을論하는理論에는毫厘도無關係하니 다못感情論으로써 淸朝의復辟論을主張하는것이오 이論者는機會가잇슬때마다 復辟宣傳을잇지아니하니 謠言의流布上 가장危險한分子라고 解說하엿다 또第四에儒敎의敎理로帝政을讚美하는者－即古典派의中國學者－部及同一系統인在中日本人을擧하얏다 이一派는中國을統一함에는 道統에依할수밧게업고 그러함에는 道統의主體인皇帝를擁立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고主張하엿다 이것은今日中國의靑年에게는馬耳東風의感이잇스나 이러한宣傳은間斷업시新聞雜誌上에 出現되여서 恒常謠言의源因이된다고解說하엿다 第二의例로張勳一派의復辟論者를擧하엿고 第四로는沈子培一派의古典學者及同一系統인復辟論者를擧할必要를認定하지아니하엿슴으로 當時에余는그氏名을列擧하지아니하엿스나 右上海特電이揭載된時事新報(大正十一年四月五日)가上海에到着하매 日本人이지만 沈子培氏의門下로 同派의有力者인西本白川氏는同氏가主宰하는週報上海及上海一新聞紙上에右特電을紹介하야 沈子培一派復辟論者의立場을說明하고 余가(小山)發한特電에對하야 가장有力한裏書를하얏스며 同氏著書 現代支那史的考察에이것을反覆하엿다 白川氏는 沈子培派의學徒된立場에서辯明한第一段에『所謂大義名分은 感情論이아니오 淸朝의中國民族에對한三大貢獻即(一)中國民族의光榮으로할만한四千年未曾有한領土의統一과擴大(二)中國四千年來未曾有한文化運動及그統一과發展(三)中國歷代의法律制度를收集하야 大成한偉業에對하야 中國民族의子孫는 追遠感謝의念을禁하지못한다 이事實의演繹이 即復辟論의本旨니 이는決코感情論이아니라』고하얏고다시所謂道統問題를辯明하야曰『中國의古道에依하면 皇帝라고하는것은王道를實際에行할만한人格그것에不過한것이다 即吾輩道統論者는 道統의主體로반다시皇帝를擧하는것은 아니다 即淸朝復辟은問題가아니다 然이나儒敎에從하면 理想的政體는 勿論君主政體오 共和政體는君主政體의變則이다 即君主政體는政治의原則으로하고 共和政治를그權道로하야 一時를彌縫하는方法이라고한다 故로共和政治가一步를進하면 반다시君主政治되는所以가有理함을確認하노라』

先導者 [46]

長白山人

중편(中篇)(三의二)

선경의 집에는 학교人동무가 만히 놀러온다 그중에도선경이와한반에잇는 커와 등갑되는바 선애라는 녀자와또 선경이보다 한반우혜잇고 나아드 한살더먹은리선형이라는 녀자는 거의날마다 오다십히 놀러왓고놀러오면 반다시 리선생을차자갓고마츰리선생에 손님이나 업스면선생의 말슴도듯고 창가도하엿다 그중에 선경이가 데일목소리가 고왓다 셰녀자는 다선생을숭배하엿다 그네의 아버지나 오라버니는 데개나셔들아다니는 애국자들이엇고 또그녀의 풍조가 그러하엿슴으로 중학교에 다니는 계집애들이면서도 니야기에 중심되는 화데는 매양정치에관한것이엇다 어서 교육이보급이되어야한다는둥지금청부대관이 모두죽일놈들이니이놈들을몰아내야한다는둥우리녀자들도국민의일분자이니나라人일을해야한다는둥 이러한 니야기를하기조와하엿고 날마다 대한매일신보에련재하는 애국부인뎐 갓흔것을보고 다시보고 자긔네도그와갓흔 녀자가되리라고 여러번맹셰들을하엿다 선생도 그네들을대할때에는

『지금은특별한때요! 조선녀자들은열심으로공부를하여서가는녀자를 만히가라치고 인도하여야할때요고은옷이나입고부자人집 며느리나되어서 제몸이나편안히 살랴는생각을 바리고나라人일을 위하여 여러분의귀한몸을 바처야할때요』이러한말로 격려하엿다 그러나선생은 『가는녀자를만히가라치라』고는하면서도 정치뎍이야기는 별로하지아니하엿다 이것을보고 세녀자는『우리를어리게보고 그러신다』하고맘에좀 불만히생각하엿다

선생이 어듸다녀온다고 나간날은 마츰 반공일임으로 선경은 선형과 선애를 다리고 오정이 조곰 지내어서 집으로 왓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셋이 사람으로 나와서 선생의방을 룡으로 마라가지고 니야기를 시작하엿다 선경은 엇선경의 자리에 선생이 안던모양으로 안고평생 암전한선형은 녀자들쉬리 잇는데서도 항상수삽만 그운음석고 알엣목받치에 벽을기대어안고 사내가는 선애는 더 원장을치고 안커서 사내들 모양으로몸을 흔들거린다 선경은 대글々 굴뜨시 알々우스며

『애 글쎄 이것 좀 보아요!』해가며 최선생이 오실때에 하렷던모양을 말한다

『글세 혈밀업는 헌망건장수야요』하는 선경의말에 선형과 선애도 몸짓을해가며 웃는다

『그래』하고 선애가『지금도최선생이라는이가 그꼴을 차리고게셔?』하고 뭇는다

『웨』하고 선경은득『선생님이엇더케 최선생을 위하시는데 말말아요 글세 들어오는길로 선생님 새옷 한벌을 내어 닙히고 보선 토수 대님까지 속々드리새것으로 갈아닙혓다누 모자는 그 이튿날 아츰에 선생님이 손수 사다 들이구요 글세 말을말아요 여간이야지』

『그래 그러케 갈아 닙혀드헌 망건장수가 흠뻣가 언니!』하고 지금것 가만히 안젓던선형이가 뭇는다

『웨 그래?』하고 선경은득『최선생두 잘 생기셧서요 가름한 얼굴에 수염이 너슬너슬 하고 아주 위엄잇게 생기셧다우 그리구 그 말슴하는 말人소리가 엇더케 점잔은지……아주 점잔은 어른이야……지금 마흔둘이라나』

『마흔 둘?』하고 선애는『선생님보다 늙으셧네……그래엇대? 선생님만큼 풍채가 조와?』하고 선경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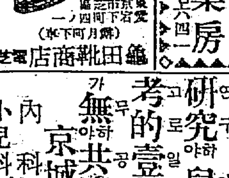
金銀白金

德力本店出張所

京城明治町 電本一五七二番 振替京城二三四番

●當五月四日부터寫眞全部交換
▲松竹기네마米國特派員撮影 實寫 羅府의日本市街 全一卷
▲米國후푸게－마루쏘푸會社 人情劇 人形의裁判 全五卷
▲伊太利로－마에라映畵 史劇 呪의오시리스 全五卷
▲米國바이다클랍映畵 連續 電光兒 第十一、十二篇四卷 全十五篇三十卷
京城授恩洞 松竹特約 團成社 電話(本局)九五九番

●當九日(水曜)부터 特別映畵晝夜大公開
米國스구린스낫봉失도社映畵 實寫 名優의生活 全一卷
▲米國잔－쓰社映畵 人情劇 女性을爲하야 全八卷
米國후옥쿠쓰社映畵 連續活劇 第十二、十三篇 虎狼의卷 판토마 四卷
▲米國에도와도社映畵 連續 第五、六篇 亂鬪의卷 怪常한光線 四卷
京城仁寺洞 松竹特約 朝鮮劇場 電話本局三六二〇番


米國製 조고레－트色 複合革 短靴 金九圓五拾錢 編上靴 金拾圓五拾錢
(郵券二錢 目錄進呈)
龜田靴商店 電芝二二〇二

年久積滯神藥 治積胸痛丸
이약은년구한적체와현저한효과가잇사오니 위와기타만성위병에 일층효험이잇사오니 병수고계시는분은 지체말고 일차시복하시요
卄一日分 定價金 一圓五十錢
壽山藥房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七六四一

본점신용은점원일동의생명이올시다
水晶玉入眼鏡票本

안경대왕은명안당
본점에주의는상당한價格에良好한物品을提供하야四海紳士淑女諸氏의칭찬하야주심을밧고자目的하나이다 注文試用하옵소서
物品目錄
一號 十八金張山形琥珀天然水晶玉入 一個金十六圓
二號 十八金張山形琥珀天然水晶玉入 一個金十四圓
三號 十八金張山形琥珀水晶玉入 一個金十圓
四號 十八金張山形琥珀水晶玉入 一個金七圓
五號 十八金張山形琥珀水晶玉入 一個金四圓
純琥珀天然水晶玉入 一個金九圓
甲 獨逸式琥珀水晶玉入 一個金三圓
乙 獨逸式琥珀水晶玉入 一個金二圓
ニッケル學生用新式 一個金一圓五十錢
안경은여하한것이든지具備함 하오니청구하시옵 우송료五十錢을단주 송하시옵소서
京城鍾路通一丁目七七番地 眼鏡時計專門商 明眼堂本店 張熙元 白
電話本局三七一七番 振替京城七一八四番

本組合에는
◎工場部 紳士服 學生服 와이샤쓰 各種帽子 其他手工品
◎營業部 土産水木白木 苧布 麻類 廣木 洋緞 紬緞各種 其他日用雜貨
◎委托部 土産品 加工品 委托販賣
仁川府內里 朝鮮物產消費組合 專務 金元奎

濟春堂開業拾週年自祝記念
小兒養育攝生法을無代金進呈함
此는營業廣告가안인故로 服藥與否는不關하고 仰呈하겟나이다 但地方에는郵稅貳錢을同封하야請求하시고 市內는親히來臨하시오 ◎郵票不添則發送치아니하며 數三人의各住所氏名을同封하면無妨하오
小兒出生된 小兒가 肝氣乳滯吐瀉로 靑便驚泣等症으로 辛苦타가 死亡或有하니 此原因은 十分의九는 乳母가 小兒取扱이 不完全한故로 本堂에서는 小兒攝養根源을 研究하야 兒患하는諸君께 無料仰呈하겟사오니 參考的 壹部式備置하야 小兒養生의 妨害가 無케하야 共濟壽城케하심을 伏望
內小兒科專門 京城鍾路壹丁目(京城郵便局東便隣)
濟春堂醫院 濟春堂藥房 兒寶本舖 振替京城五壹七五番

獨逸리텔製藥會社特製 內服丸製
梅毒斷根新藥 메－칼
輸入元 京城府南大門通 玉田洋行 振替京城五二一七
一週分 三圓五十錢
▲其他獨逸製品各種具備

中性石鹼 イマヅ洗玉
▲石鹼으로超越하고 髮과皮膚에有害한알카리性업소
▲여드름及皮膚病에잘리정음곳친
▲乳兒沐浴 洗顔 理髮用
三越 高島屋 大阪代理部等에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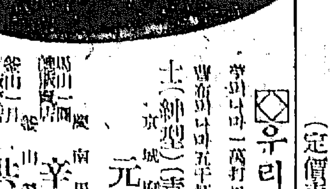
原料配合改良名
京字票 고무靴는
從前보다耐久力이倍加되고 價格을割引하야 社會에奉仕하오니 一次試用하소서
京城護謨工業所 京城南大門通五丁目八番地
販賣部 京城本町 第一工場 第二工場 四海工場
△開業一週年紀念特別割引▽
今般本所開業一週年을紀念키爲하야

癌 ぷろちもーる
新治療藥發見 發見者 中村正二氏
製造元 東京齋藥研究所 發賣元 鳥居商店 代理店 三共株式會社出張所

讀하라自由의樂園을願하는民衆이여
◎읽으라!! 사랑에煩悶하는者여!◎
戀愛書簡文短篇小說 靑春의사랑
本書는現代高名文士諸氏가各其一二篇式을合하야 方今우리社會戀愛界의眞理와 指導를公開하야 實際에便利를圖한 戀愛의結晶品이며 必讀할 最新名作이다 『오아씨슨가 沙漠의 연애슨지!』
全壹冊 美本小形 定價金七拾錢 送料金拾錢 地方注文 三冊以上 先金要
總發賣所 京城鍾路 新明書林 京城鍾路二丁目 京城書館 京城鍾路一丁目 東洋大學堂

양복은 정자옥
洋服은丁子屋

萬病根治 紅精醫術通信敎授
全朝鮮各地分院長募集 資格은醫業程度以上
元山府南村洞 東洋紅精治療院本部


◎우리物產高布파나마帽子◎
士(新型)(靑年型)(대마이型)(類七種八種)
京城府公平洞 元興帽子店 振替京城四七〇二
辛澤璘商店
共榮商店

二週年紀念으로特別大割引
通信注文에迷惑을打破하마하고
大命拜受한
大同門印帽子製造發賣元
販賣部不壤府竹川里로下命하소서
(定價表는請求하는대로進呈함)
世興商會
工場製品 各種鳥打帽 各種學生帽 各種洋服 各種帽子
土產部 委托部
보시요?

共和軍講和拒絕

愛蘭自由國首相 코스그레부 氏는 議會에서 人을 派하야 共和軍首領 데바레라 氏에게 講和條件을 提出하얏스나 「데」氏는 此를 拒絕하얏다고 聲明하얏더라(「더부린」九日發)

獨勞黨領首處刑

「아인스」의 佛國軍法會議는 獨逸勞働同盟의 領首 若干에 對하야 「월덴」軍法會議와 同一한 刑罰을 宣告하바 卽 領首 十七名에게 對한 其懲役年數는 合計 七十九年이더라(伯林八日發)

英新聞會議宣言非難

英國諸新聞은 佛國軍法會議의 宣告는 大히 苛酷하야 其前例가 無하다 하야 一齊히 非難하얏스며 又伊太利新聞도 此를 非難하얏더라(倫敦十日發)

最後까지 對佛抵抗
獨逸人民의 一般決心

新聞界及公衆은 黨派의 區別이 無히 一齊히 「쿠룹」社長 其他 重役에 對한 判決을 憤慨하며 新聞은 「此結果는 반다시 獨逸이 最後까지 佛國에 抵抗하리라」고 陳述하얏더라(伯林九日發)

判決苛酷에 驚愕 ―― 佛國官憲에게 處罰되는 者는 全部訴訟中인바 獨逸大統領 에벨트 氏는 電報로써 判決이 苛酷함에 驚愕한다고 通知하얏는데 「쿠룹」氏에게 對한 判決은 三對一로 可決되얏스며 其他의 判決은 全員一致로 可決된 것이라더라(「웰덴」發)

印度에 又重大騷擾
敎徒五十名死傷

當地에서 又復暴動이 勃發되야 印度敎徒 五十名의 死傷者를 出하얏스며 今日에는 更히 二軒의 商店이 燒燼하얏슴으로 市民은 戰々恟々하며 印度敎徒의 商店은 閉鎖되얏더라(「암릿가」八日發)

土希人財産沒收

信憑할만한 側의 傳하는 바에 依하면 土耳其政府는 아첸스銀行君府支店을 閉鎖하기로 決하야 聯合國及北市民에게 預金을 引出케 하기로 決定할 터이며 逃亡한 希臘人의 財産은 此를 沒收할 計劃이라더라(君府九日發)

聯合國對土說明要求 ―― 土耳其官憲이 雅典銀行君府支店의 閉鎖를 命한데 對하야 聯合國은 正式으로 抗議를 提出한 後 說明을 要求하기로 決定하얏더라(「로-산누」九日發)

露委員三名暗殺
伊太利國粹黨員의 非行

伊太利의 國粹會員으로 「로산누」會議에 出席中인 露國委員 「보로푸쓰키-」 「아렌쓰」 「스쓰넬」의 三氏를 暗殺하얏다더라(「로산누」十日發)

米外語學校全廢

加州上院은 外國語學校의 規定을 制限하야 結局 千九百三十年까지에 學校를 廢止한다는 法案을 可決하얏다더라(「사크라멘트」九日發)

米露接近의 前提
米實業家露國訪問計劃

米國屈指의 實業家等은 對露通商上 交誼關係를 促하기 爲하야 露國訪問의 計劃을 樹立하얏다 하며 又紐育의 有名한 實業家 「부시」氏는 「페트로그라드」築港事業을 視察키 爲하야 莫斯科로 赴하얏다더라(紐育十日發)

英海軍根據地 姑未決定

九日下院에서 外務次官 「마크닐」氏는 「라-비샤」氏의 質問에 對하야 政府는 新嘉坡의 海軍根據地設立에 關하야 數名의 有名한 民間專門家의 意見을 徵收한 方針이라 然이나 아즉 決定的으로 確定한 것은 아니라 하얏더라(倫敦九日發電)

라인에 列車墜落 死傷者多數

佛國人을 乘케한 列車는 聖고안 附近에서 來因河로 墜落되야 多數한 死傷者를 出하얏는데 救助隊는 僅히 旅客 二十名의 屍體를 發見하얏다더라(伯林十日發)

黎總統辭職聲明
十月十日 共和紀念日에

最近保定派로부터 黎總統의 任期問題에 關하야 國會에 質問을 提出하얏는데 黎總統은 自己의 地位가 不安함에 依하야 人을 保定의 曹錕氏에게 派遣하야 來十月十日의 共和紀念日에 辭職하겟다 聲明하고 國會에 改選을 請할 意志가 有한 旨를 告하얏다더라(北京十日發)

張內閣瓦解前兆
各部總長陸續退隊

張總理는 九日午後七時에 二十日間의 請暇를 提出한 後 西山으로 出發하얏스며 敎育總長 彭允彝氏도 十日上海로 出發하리라더라(北京九日發)

◎財政總長 劉恩源氏는 十日朝 辭表를 提出하얏는데 理由는 北京守備軍司令官 吳夫祥氏의 督促에 依한 派隊及警官隊의 經費 七十五萬元의 支拂期日이 切迫하얏슴에 不拘하고 現金의 調達이 不能함이오 尙且 氏는 天津으로 退去하얏더라(北京十日發)

外國人殺害威脅
土匪頭目對山東督軍書面內容

山東督軍으로부터 日本領事에 到達한 報告에 依하면 津浦線遭難車의 二等室에는 二十七名의 外人乘客이 有하얏는바 其中 死亡者는 英人 一名뿐이오 伊國人 一名과 米國婦人 二名은 釋放되얏는데 其時에 土匪의 頭目이 山東督軍에게로 手渡한 書面을 米國領事에게 手渡한바 其文面에 依하면 此際에 官兵으로써 討伐하면 外人全部를 殺害한다는 意味가 記載되얏더라(東城電當局着)

公使團會議의 內容 ―― 八日北京公使團會議에서는 葡萄牙公使로부터 津浦線土匪襲擊事件에 關하야 爲先嚴重한 抗議를 中國政府에 提出한 旨를 報告한 後

一、土匪에게 拉致된 外人의 釋放에 關하야 十分한 措置를 取하기를 中國에 强要할 事
一、三日以內에 釋放되지 못할 境遇에는 每一日의 賠償金支拂을 中國政府에 要求할 事
一、各國領事로 하야곰 調査에 立會케 할 事

右三項을 決議하얏는데 事件은 國際問題가 될 模樣이더라(北京電)

國際會議召集乎 ―― 土匪事件以來로 益々惡化되는 中國의 現狀을 審議키 爲하야 國際會議가 召集될 模樣인바 大統領 하-딩 氏는 中國問題處理의 方法을 決定할 權能을 附與케 될 터인데 右國際會議에 參加할 列國은 對中九個國條約國뿐이라더라(紐育九日發)

◎紐育타임스 華盛頓特派員은 報道하야 日 土匪事件以來 日益惡化하는 中國의 情勢를 審議키 爲하야 新國際會議가 召集될 希望이 充分히 有하다 하얏더라(紐育九日發)

土匪事件과 日本態度 ―― 津浦線土匪事件에 對하야 各國에서는 最히 强硬한 態度로써 北京政府와 交涉하는 中인바 此際에 日本政府로는 本件에 對하야 直接被害者는 一名도 無하나 此를 傍觀키 不能함으로 上海及北京에 外關係되는 公使團會議에 列席하야 列國代表와 共히 善後策을 講究中인데 日本政府는 本事件의 發生으로써 等히 黎大總統及北京政府에 同情을 表하는 터인즉 萬若 列國이 此를 機會로 領土的이나 或은 利權을 獲得코저 中國官憲에 對하야 干涉하거나 又는 出兵等으로써 攻擊코저 하는 態度에 出하면 日本은 坐視치 안이하고 善後策을 講究하야 今後의 保障을 得케 하도록 助力할 方針이라더라(東京電)

共同出兵에는 反對乎 ―― 土匪事件에 關한 英米共同出兵說에 對하야 日本外務省은 此를 否定하는바 卽 廣漠한 山野에 少數의 軍隊를 出動하야 其效果가 無할 뿐 안이라 迂濶하게 高壓手段에 出하면 捕虜를 殺戮케 할 念慮가 有함으로 日本은 協同出兵하는 反對할 터이라더라(東京電)

米膺懲手段中止 ―― 米國國務省에 達한 公報에 依하면 中國은 津浦鐵道沿線土匪에 對한 膺懲手段을 中止하고 米國等의 委員은 被害外人의 釋放을 得코저 努力中이라더라(華盛頓十日發)

外人人質一部釋放 ―― 外人의 人質은 「무쓰라」氏等을 除한 外에 全部釋放되얏다는 電報가 當地에 到着되얏더라(上海十日發)

山東督軍引責辭職乎 ―― 山東督軍 田中玉氏는 今回의 土匪事件에 對한 責任을 感하고 十日中央政府에 電報하되 官職褫奪의 命令을 速히 發布하라 請하고 事件의 解決을 待하야 辭職할 旨를 申請하얏더라(北京十日發)

濟南에 排英暴行

當地에서 又復排英暴行事件이 惹起된바 卽 一中國人이 英人으로부터 金錢을 借用하얏다가 此의 支拂을 請求하매 英人을 毆打하얏는데 排英官은 英國領事에게 通告치 아니하고 捕縛投獄하얏더라(濟南九日發)

此로 數日來 危機를 傳하든 出漁問題는 無事히 解決된 模樣인바 出漁의 旅券査證은 日本에서 「吳」氏나 或은 「얀노푸」氏나 又는 臨時海參威로부터 派遣될 露國代表에 依하야 行케 되리라더라(東京電)

領事撤退中止乎 ―― 出漁問題는 日本政府의 希望을 達하얏슴으로 右通知와 同時에 浦潮局에서는 此를 露領水産組合에 通知하얏스며 同組合에서는 更히 北海道北陸方面의 關係當業者에게 對하야 通知한 後 方今 漁期가 切迫한 故로 關係出漁者는 一括하야 此의 旅券에 對한 査證을 受케 하야 卽時 出漁케 되도록 圓滑히 解決한 것이며 又此에 關聯하야 露國의 態度가 具體的 緩和된 以上에는 海參威日本領事館은 撤退치 아니할 터이라더라(東京電)

西北邊防督辦 馮玉祥氏로 決定

最近에 新設하기로 한 西北邊防督辦에는 馮玉祥氏를 特任하기로 內定되얏는데 目下官制를 草案中이라더라(北京十日發)

出漁問題回答

出漁問題의 請訓에 對한 莫斯科政府의 回訓이 十日朝에 「吳」氏에게 到着한 故로 「吳」氏는 此를 携帶하고 直時 後藤子를 訪問한바 右莫斯科政府의 回訓에 依하면 莫斯科政府는 後藤子에게 對한 好意로 如何한 露領漁業이 日本國民에게 廣汎한 利害가 有하다는 「吳」氏의 商量을 是認함으로 後藤子의 提出條件을 拒絕할 만한 理由를 發表치 못하야 此에 承諾을 與하얏다는 것인데

全部解決認定難

露國本國으로부터 「吳」氏에게 送한 電訓의 內容은 漁業問題의 解決에 關하야 日本에서 「吳」氏에게 旅券査證의 職을 擧케 할 事를 認한다는 簡單한 것으로써 此로써 漁業問題全部解決을 見키는 不能하니 卽 漁撈許可問題, 稅金의 問題等은 아즉 解決의 域에 達치 못한지라 今後引渡摘을 要求하며 玆에 最後의 交涉을 할 것은 「吳」氏에게 對하야 此問題의 解決을 ... 今十二日限의 交涉期日은 ... 全部解決한 것으로는 見치 못할지라 故로 政府로서는 當然한 順序는 渡漁領事의 ... 公表가 有한 後에야 本問題의 解決로 見할지니 更히 一兩日을 待치 아니하면 決定키 難한 問題이더라(東京電)

日露會商의 前途

日露會商問題의 前途는 아즉 逆睹키 難하다 一時 險惡하든 漁業問題도 査證問題의 解決에 依하야 緩和된바 今後도 露國側이 如斯히 妥協的態度에 出하게 되면 或은 非公式交涉을 開始하게 될는지도 未知이며 特히 確聞한 바에 依하면 今回 莫斯科政府로부터 「吳」氏에게 訓令이 有하야 交涉委員으로 派遣케 되리라 한즉 此點으로 보면 「吳」氏自身도 病氣를 不拘하고 露國問題에 對하야 極力周旋할 터이라 함으로 今後後藤子와 「吳」氏의 會見은 注目할 만하더라

鐵道에 司法警察
鐵道員에게 警察權附與

科學이 進步됨을 따라 最近에는 犯罪方法도 頗히 巧妙케 된바 延하야 鐵道와 犯罪의 關係도 漸次 複雜케 됨으로 各國鐵道當事者도 現在 此方面에 對하야 非常히 苦心中이더니 日本政府는 此에 留意하야 今回에 改正된 刑事訴訟法에는 司法警察의 事務取扱範圍를 擴張하야 鐵道從業員에게도 現行犯에 對하야는 警察權을 行使케 한 것을 爲始하야 各方面으로 鐵道從業員을 活用하도록 作成케 된바 改正刑事訴訟法은 旣爲公布되얏슴으로 過般 司法省에서 鐵道省에 對하야 現在의 移動警察外에 乘務員에 對하야 司法警察事務를 執行케 할 準備로 講習會를 開催하는 것이 ...

全鮮法官會議
昨日부터 六日間

全朝鮮司法官會議는 旣報와 如히 昨十一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얏는데 齋藤總督, 有吉政務總監 以下 各局部長과 法務局長及司法官 六十六名이 出席하야 事項을 討議하얏는바 午前에는 齋藤總督의 別項과 如한 訓示가 有하얏고 午後부터는 會場을 法務局內로 移轉하야 十六日까지 繼續할 터이라더라

齋藤總督訓示

玆에 各位와 會同하야 親히 所懷를 披하는 機會를 得함은 欣幸으로 思하는 바라 時勢의 進運에 鑑하야 護者에 朝鮮刑事令을 改正하야 近히 此의 實施를 見함에 至하얏도다 抑本令改正의 趣旨는 人權의 擁護竝裁判의 公正을 期함에 不外하도다 各位는 善히 此意를 體하야 部下의 督勵에 努力하며 ... 人權의 擁護竝美風의 保持를 圖하야 ... 民事令의 改正도 本年七月一日부터 施行케 되얏는바 ... 戶籍令을 制定公布하야 共히 本年七月一日로붓터 此를 實施코자 하니 各位는 善히 改正의 趣旨를 體하야 其運用에 誤됨이 無하도록 所期의 效果를 收함에 努力하야 特히 戶籍事務의 監督에 ... 할지로다 ...

私鐵合同은 九月
資金五千四百萬餘圓

朝鮮私設鐵道合併에 關하야 朝鮮森林兩社와 拓林의 兩社는 合併의 前提로 하야 一株五十圓拂込의 株式으로 合併하야 四圓拂込의 것으로 할 關係上 森林은 資本金 一千萬圓으로 拓林은 七百五十萬圓으로 各其減資를 行할 터이라 하며 合併條件은 來二十八日午前十時 六會社가 一齊히 東京에서 臨時總會를 開하고 附議豫定인바 各社의 總合資本은 中央 一千二百萬圓 南朝鮮 一千萬圓 西鮮殖産 五百萬圓 兩江 七百萬圓 森林 一千萬圓 拓林 七百五十萬圓 合計 五千四百五十萬圓으로 拂込額 一千七百六十五萬圓으로 九月一日로써 成立할 豫定이라더라

公設市場成績

京城府四公設市場의 四月中賣上高는 六萬五千六百七十九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一千四百八十圓의 減少를 示하얏는바 野菜乾物類의 需要期임으로 賣買가 不振함에 因함인바 此를 各市場別로 一日平均賣額及一戶一日賣額을 示하면 左와 如하더라

▲明治町 一萬二千六百四圓
一日平均賣額 四百十一圓七十四錢
一日一戶同 四十二圓五十六錢 七錢五厘

▲龍山 一萬二千百九十四圓
一日平均賣額 三百八十九圓六錢
一日一戶同 二十五圓七十三錢 十二錢五厘

▲花園町 二萬三千五百六十八圓七十五錢
一日平均賣額 八百十二圓七十錢
一日一戶同 四錢七厘

▲鍾路 八千二百八十一圓
一日平均賣額 二百八十五圓五十九錢九厘
一日一戶同 十六圓八十錢

爲替貯金受拂

京城郵便局의 四月分爲替貯金受拂狀況을 聞한즉 內國爲替 一九六,〇〇二圓 外國爲替 五,五一四圓 振替貯金 一九九,五五九圓 遞信省入 二四,三三四圓 府公金 二四,八六一圓 ... 六,〇四四圓 外國爲替 八,四九〇圓 ... 合計 [illegible]

日本小包郵物激增

遞信局調査에 依하면 本年四月中 日本에서 朝鮮內에 到着한 小包郵便物은 九萬三千百一箇인바 此를 昨年同期에 比較하면 二萬四百六十箇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此는 主로 四月以降實施된 移入關稅撤廢의 原因이라더라

記者團今夜入京

釜山에서는 記者團歡迎準備가 完成되고 出迎할 委員一行 六名은 旣히 下關에 到着하야 其一班은 十日朝 馬關發 先發一行을 案內하야 釜山에 向하얏고 光永電通社長은 先發하야 十日朝 釜山에 到着하야 滯在하며 一行의 來着을 待하는 中 總督府에서도 石川保安課長 以下 七名과 滿鐵大阪의 五名은 十日夜부터 十一日朝 釜山에 來着하얏스며 記者團一行은 今日午後에 入京할 豫定이라더라(釜山)

全道會社狀況

朝鮮銀行調査에 依한 四月末日現在 朝鮮에 本社를 有한 會社는 株式會社 五百八十五社 公稱資本金 四億八千九百二十八萬七百五十圓 拂込金 一億二千六百四十二萬一千三百二十九圓 合資會社 二百七十一社 公稱資本金 一千百四十七萬五千四百三十五圓 拂込金 一千百九萬七千九百三十五圓 合名會社 八十四社 公稱資本金 六百二十一萬六千七百十三圓 拂込金 六百十八萬 ... 計 九百四十社 公稱資本金 五億 ... 拂込金 一億三千 ... 인바 四月中에 新設된 會社는 二十社 公稱資本金 二百十萬六千圓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今에 新設會社事業을 見하면

業別	社數	公稱資本	拂込資本
製造工業	五	二七〇,〇〇〇	一九七,〇〇〇
農業	一	五〇〇,〇〇〇	三〇〇,〇〇〇
金融信託	一	二〇〇,〇〇〇	五〇,〇〇〇

商議決算總會

京城商業會議所 大正十一年度決算은 目下大體로 整理되얏슴으로 來二十三日頃에 役員會를 開催할 豫定인바 決算評議員會는 今月末 二十七八日頃이 되리라더라

京城煙草總會

京城煙草賣捌株式會社에서는 來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商業會議所會議室에서 大正十二年度上半期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한다더라

辭令

總督府參事官 荻原彥三
學務局學務課長兼宗敎課長事務取扱을 命함
總督府典獄 中橋政吉
京城刑務所長을 命함(十日付)
同 典獄 中居寬
西大門刑務所長心得을 命함 同 次郞
仁川少年刑務所長心得을 命함 同 典獄
大邱刑務所長心得을 命함 同 典獄補 富田良吉
永登浦刑務所長 典獄補 橫山源三郞
公州刑務所長 典獄 小松
大田刑務所長 典獄
咸興刑務所長 典獄 村上
新義州刑務所長 典獄 上野
海州刑務所長 典獄 早川鐵次郞
晉州刑務所長 典獄
釜山刑務所長 典獄 市村
木浦刑務所長 典獄 吉野
全州刑務所長 典獄補 力武竹一
公州刑務所淸州支所長 典獄補 角田竹治
大邱刑務所金泉支所長 典獄補 不動讓太郞
釜山刑務所晉州支所長 典獄補 高根勇吉
開城少年刑務所長 典獄 淸原榮太郞
光州刑務所長(五月五日)
水原試驗場技師 長友寬
任總督府技師(五等)
殖産局在勤을 命함
朝鮮總督府技師(五月九日)
免朝鮮總督府事務官 桑原一郞
任朝鮮總督府林野委員會委員
朝鮮總督府林野委員會委員被命 渡邊豊日子(十月東京電)

謹告

昨十一日附發行本報第九百八十六號記事中 當局의 忌諱에 抵觸된 바가 有하야 發賣禁止의 處分을 當하얏기로 該記事만을 削除하고 號外를 發行配付하얏기로 玆에 謹告함

東亞日報社

消息

▲齋藤總督은 今十二日午後七時부터 官邸에서 司法官會議에 列席者及關係者 四十七名을 招待한다
▲李仁氏(辯護士)는 今般 市內寬勳洞百十番地에서 開業하고 一般民刑事務를 取扱
▲師範雜誌 靑年叢社는 今般 京城府中學洞十七番地로 移轉하얏더라

橫說竪說

▲齋藤總督이 司法官會議에 與한 訓示中 朝鮮刑事令의 改正한 趣旨는 「人權의 擁護와 裁判의 公正을 期함이라」하고 人權의 擁護와 美風의 保持를 圖하야 ... ▲又 「晩近世界思潮의 動搖에 伴하야 動輒히 危險思想을 抱懷하는 者가 不無하니 是는 實로 憂慮를 不勝하는 바이라 ... 其流弊의 所及이 殆히 推測키 못하리라」고 ... ▲「苟히 直面에 逢하는 者는 宜히 人心의 所歸를 察하야 機宜에 適한 處置에 出하는 外에 ... 社會의 安寧秩序를 保維하야 ... 思想의 動搖에 伴하야 ...」 [illegible]

商況

昨日阪地步調는 前場初付 三十四圓五十六錢에 始하야 八節外지 五十五圓臺에서 細刻하다가 九節에 六十錢臺에 ... 十五錢으로 八十錢 ... 當地軟軍의 追擊으로 ... [illegible]

初付 二十八圓九十九錢
止値 二十八圓六十七錢
高値 二十八圓九十九錢
低値 二十八圓五十八錢

六節 二十八圓六十八錢
帳入値格 [illegible]
當限 二十七圓八十九錢 [illegible]

商況

▲鮮銀發行高(十日) [illegible]
▲日銀銀況(九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十一日) 枚數 四、二三八 金額 一、八八八五、〇〇五
▲日本金利(十日) [illegible]

外國經濟電報(十一日發電)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는 三十二片八分之五로 前日보다 十六分之一片 下落하얏더라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는 六十六仙二分之一로 ... [illegible]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는 ... [illegible]

大阪株式(十一日)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illegible]

株式市場
京取新低價 硬派逐投賣
[illegible]

京株賣買價(十一日)
[illegible]

短期取引
[illegible]

京取今期配當
[illegible]

京株賣買高
[illegible]

仁川期米市場
[illegible]

大阪三品(十一日)
[illegible]

綿絲布標準價
[illegible]

在外同胞慰問會員芳名(五四)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妃殿下께서 留聲機를
제사회사직공에게 하사하셧다

리왕비뎐하께옵서 작 십팔일에 동대문밧 조선제사회사에 납시셧다는 소식은 임의 보도한 바어니와 … 제사회사 에서밧치인다 … [illegible]

光陽小作紛爭
소작료는 십분지사로

전남광양군(全南光陽郡)에서는 소작운동(小作運動)이 이러난후로 오래동안 분규중이던바 … 군수서당이 조뎡하야 소작료는 십분지사로 … [illegible]

獨立團의 幻影으로
보뎡서가 뒤집힌 이야기
朴点紅을 中心으로
치정관계가 원인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이 시내에 잠복하야 잇다는 …(京畿道警察部)의 엄중한 주의를 … 정권번(大正券番) 기생 박뎜홍(朴点紅) … [illegible]

又復重大事件
斷指同盟暗殺團入京?
각서대활동으로 범인수색중

요사히 시내 각서에서는 연일관내의 호구조사를 계속하야 하더니 과연 또다시 무서운 비밀단의 자최가 나타나게되엿다 북만주방면으로부터 ◯◯하라는 사람들 단당으로 삼는 단지동맹암살단(斷指同盟暗殺團)이 국경을넘어 조선에잠입한자취가 잇스며 … 경긔도경찰부에서는 각서에 대한 엄명을 … [illegible]

警察當局의 干涉으로
人物投表는 斷然中止
중지하기까지의 경과와 중지한사정
상품의 뎌당한 사용방법은 다시발표

본사에서 창간일쥬년 긔념으로 현대인물투표(現代人物投票)를 모으기로 결뎡발표하야 세상의 렬々한환영에 작일발행의 신문으로와 미리발표한바와 가치 데일회의 투표성뎍을 발표하얏는데 총독부(總督府)에서는 이투표뎍수의 발표가 치안에 방해된다는 리유로 발매를 금지하고 또 계속하야 투표성뎍을 발표하는 데는 일종의 제한을 부치겟다는 의견을 표시하얏는데 이제 발매를 금지한 리유와 내용과 이후의 투표발표에 대한 제한의 내용은 발표할수업스나 하여간 당국자의 말대로 제한을 부치서는 투표의 공정(公正)을 일허버릴뿐아니라 당초에 세상에 약조한것을 저바리게되고 본래의 목뎍에 위반이될으로 본사에서는 독자제씨의게 대하야 긴히 미안하며 스々로도 도리보아 또한 비상한 유감이지마는 할일업시 이 계획을 단연중지하기로 하엿스며 인물투표에 쓰고저하든 상품(오백명에게 돌아갈 금표들드리든것)은 별도히 뎍당한방법으로 쓰고저 연구중인즉 추후다시 발표하기로하고 이에 사실의 경과를 대강긔록하야 세상의 량해를 엇고저하노라

强盜團三名逮捕
간밤시내룡산방면에서
동류가아직도 만흔모양

종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재작 십일하오 밀시경부터 돌연히 활동하야 시내 청엽뎡(青葉町)에 사는 서봉(徐鳳) … 평양(平壤)에 원뎍을둔 玉(二) … [illegible]

小作人七十名
海寺小作紛糾
원만히 해결되듯

경남합천군가야면(陜川伽倻面)에 … 해인사(海印寺) … 농민회(農民會) … [illegible]

死線에 接한 生活
그나마의 根據地도 未久
털도용더가 되야 쫏겨나

… [illegible]

사랑채는
「여물」을만들어서
唯一의 業은 돈치기
가지가지
병이들어
그들에게

… [illegible]

衡平社發起會
차별철폐를 부르짓는

경남진주(晋州)에서 일어난 새단데 형평사(衡平社)라는 단데를 조직하엿다함은 본보에 임의 소개 … 진주좌(晋州座)에서 … [illegible]

直徑一寸의 雨雹
장날이되야 손해가만앗다

… [illegible]

博徒를 銃殺
순사는 징역십년

평안북도선천군(宣川郡) … 순사최석곤(崔錫坤) … [illegible]

四父子共謀로
순사를 구타치사

평북뎡주군 신안면송덕동(平北定州郡新安面松德洞) 강창권(康昌權) … [illegible]

또公普生盟休

일본선생을 배척하야 황해도안악공립보통학교(黃海道安岳公立普通學校) … [illegible]

兩處에 電車事故
손과 머리를 다첫다

… [illegible]

朝鮮軍隊技術部
『하바롭스크』에 신설되엿다

… 조선군대기술부(朝鮮軍隊技術部)라는 … 五十名▲通信兵四十名▲騎兵五十名▲騎給兵一百名▲武器製造兵三十名 … [illegible]

釋王寺의 八日
림시렬차 운뎐

… ▲往路 元山發 前八時 釋王寺着 同九時十五分 ▲歸路 釋王寺發 後五、四〇 元山着 同六、五二 … [illegible]

小作人에게 施粟

… [illegible]

裸體로 拷問한 巡査
징역륙개월에 집행유예

충남홍주경찰서(忠南洪州警察署) … [illegible]

萬年筆속에 판자
장혀서구류중이다

… [illegible]

衛生注意書配付

… [illegible]

車中에서 지갑窃取
경성역에서 잡혓다

… [illegible]

出産即時로 埋葬

… [illegible]

◉休지통

… [illegible]

大氣豫報

… [illegible]

第四回全朝鮮野球大會

◇期日 五月十八日부터兩日間 青年團豫選戰부터開始
◇處所 京城貞洞培材高普校運動塲
◇申請 參加金拾圓을添付하야五月十四日까지京城府松峴洞三四番地朝鮮體育會에到着하도록
◇抽籤 五月十五日午後四時體育會에서
◇入場券 普通券參拾錢、學生券拾錢(一回一枚)

主催 朝鮮體育會 後援 東亞日報社

梅毒淋疾 患者의 … [illegible]

産婆開業 朴慈惠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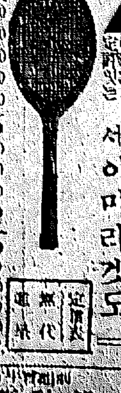
廣告 … [illegible]

眞正한 奇藥 … [illegible]

本藥으로 特効보는 症勢 … 慶和堂藥房 … 金拾圓也 … [illegible]

股主及實習生募集 … [illegible]

오시오 民衆娛樂大會에
民衆娛樂大會
時日 五月十二日午後七時부터
會場 京城公會堂
主催 民衆娛樂研究會 後援 朝鮮新聞社



大阪期米 … [illegible]

怪物 (四七)

千里駒譯

「도민」경이 떡배를 벅々밟며 그로파를 바라보앗더니 과연원단구어미가 분명하엿다 「자비잠와비 자비아들인지아들의귀신인지를지금광양병원으로 보내일터인데 가치가게 자동차가 이분동안이면올터이니 세 나는별로 더ー할말이업고 자비량심에 커런아들을 실년이나두고 나의집안에 화근을 만드럿스나 그만하면 만족하겟고 사실이탄로가되엿스니 자비마음으로 고통을받을수밧게업네 로파는 눈물이비오듯하엿는데 울음반 말반으로

「그동안음식을 엇어먹이지아니하엿드면 발서 굴머죽엇슬터이올시다 어미의 마음으로 참아게지식을 굼기어죽일수야 잇슴닛가 밤낫울고 사람노릇을하라하엿도 어미를 조라먹엇슴니다」 「도민」경의목소리는 부지중에 크게 나아오며

「흉악한 계집이로군 네말은 지금비자식만나무라지마는 너는 나히도 먹은계집으로 아모도 도라볼수업는 부인의 참은앞헤 와서 보드냐ー자라고, 간당이여질만한 소리를 바마다 하게하엿지 너는 아들보다 나흘것이 반푼어치도 업슴를ー분아니라 등등에 너는ー욕하하단하고 동원을 하엿터니 그계집은 아모말을 못하고 그대로 업되려잇섯고 자동차는 발서 한편모통이로 도라드러왓다 운전수가 러분당한하야

「귀동을 올녀?ㅅ코 등이여 노흔오라지를 굴려도 관계업다 긔운은조금도 남지아니하야 거진죽어가는놈이다 내가 오늘아니면 대일병원으로갈터이니 그리 말하여라 하인두사람이 원단구를 붓드러손떨에 묵게던 오라지를 그르고 자동차안으로 올녀노앗더니 무엇이라 주얼거리는것 가를원이고 반항은아니하엿스며 ㅓ 어미는아들엽헤주라안즈며

「머감에 이서지금은 우리모자를 못하실말슴을 다ー하섯지마는 나아조떼여 바리십니다 우리다려 우리아들이 흉악한사람은 아니야요 이애가수풀속에서 천연의취미를 조아하야 바람과나무와나는 짐생을 사랑하며 세요 만일지금이라도 말정한 정신이나

「ー발을마치지못하고 혹々늣겨가며 우리들는데 「도민」경인지 한소리로얼른 위로를식혀 디오 으로 갈터이야 하고 웃터미

「만일부인의병환이 쾌차하시면너의모녀는용서하야 줄터이다 또 낫지아니하지면 데일감한엿다 자동차는 밤시떠나갓고 「도민」경이집안으로드러가다가 하의사를맛낫더니

「부인에게서지금 정신을 못차리심니다 아마오래동안 정신을차리지못하실터이지요 술이나한잔주시지요」

부인은 「도민」경이원단구의귀신을차벗게서잡는줄을알고 그말을하엿든 것이고 그런일이잇슴을가보려하야 의사와지 청하야두엇다가 응급치료를 식히인것이다

그러커러동편이 훤이 터오는데 밥에 혹림에 법석하는 소리는 요란이 들니엇다 의사가 본커날음으내여

「지금도 발작을 하심니가」

「비나무라고는 한가지도 남기지안코 업시하야 깨끗한 밧을 만드러야지 우리집안에서 그런부정한수풀을 엽혜두고 화를 만히보앗슴니다 우리는 몃칠아니면 이사리도하겟지마는 이후에 다른사람이와서 산다하여도 마다그런」

일년이나 중을고생을 하엿습니다」하엿다

×　×

여름날 더위는 푹々쳐고 사람의머리에는 구슬가른땀이 케일도여러지는데 「도민」경의 개인에 관계되는 일로 사방에서 물녀드러와서 방안에 감아나안저는 경티기가 어려우니 밧 능압코로 나아가 바람을 쐬고 잇섯다 그때는원단구를 붓드지가 단다세되는 날이다 자동차회사 종무로 와홈 이서 흔히 배원에 와 다이가 잔자 실로 사람은 영국귀족의 자식으로 업자에 나서 늘기도 잘하고 돈도 잇과가치 버는 유망한 청년인데 형티 공작부부와가치 「도민」경의집에와서 산양하든 사람이다

「무슨소식이 엇더하십닛가」

「아즉정신이 분명치못한데의사의말은 아모념려가 업고 왜나기만하면 관계업다고 합니다 두어마리로 부인이속히회복되기를 바란다 한뒤에 멀지아니 보이는 곳에 뽄지가 이러남으로

「오늘손님의 만히 오시겟슴닛가」

「그럴듯지도 모르겟소」 그경넌은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쭉펴다 그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어디로갓고 도민경은 자긔방으로드러가서 편지쵸를 뒤적々하고 잇섯는데 김사만이가 차커왓다 그날 도민경은 군복을 입고 잇섯는데 김사만이는 손을 내며 미련흔들고

「이것은무슨의복을입으섯소」

「멀세해전에 내가장교를단이엿슴니다 이런빼에 의복님이엇섯슴니다」

「대체 당신은진지미하시오」

도라지시대를 따러입어야자요」

국내마음과가치 커리를 하심니 十字하며 목소리를조고만치 낫초어

「우리독일민족은 세계에 데일나요 술이나한잔마시고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태양덕분구를 가지도 못하엿스니 갓소려다가 서로 멧잔식마시고 김사만이는 안락의자에 옴겨안즈며 「도민」경의 군복을 바라보며

「귀족창을 입엇다고 귀징에 나아가라지는 아니하겟지요」

「아즉은념려업소 나는 나히가 쏘미나 놋스니까 커음으로는 전정에나 아가지안켓슴니다 어디로가오심닛가」

김사만이는 의자를 조곰갓참게놋고안저

「애란에 갓다 왓소 아모말슴도 안코 갓던것은 실례오마는 당신은아즉우리와갓지는 아니하오만일독일부군들을잡으면 엇지하랴는하야 참모본부에서 나려다레에 좀 갓다오라고하엿소」하고 며담하엿다

民產組發起會

國產을 獎勵하며 浪費를 節約하야 自作自給의 生活을 營爲할 目的으로 當地有志諸氏가 民產組合을 發起하얏다함은 本報에 旣報한바어니와 去七日 當地十字醫院에서 發起人總會를 開하고 定款通過 發起狀況報告 組合員募集方法 役員選擧等을 行하얏는데 當日當選된 役員은 如左하더라

理事長 韓泰觀 理事 朴貞善 外三人 監查 文泰興 朴英森 財務 禹弼舜 安州面代議員 李晉奎 立道徹 朴英森 朴履玉 立石面 洪齊道 命逵洛 崔行 大尼面 文泰興 李炳德 東面 李昌重 李昇基 權花面 朴來榮 林鍾六 新安州面 安在赫 李寅彰 安潤燮 谷面 王基昌 寶蓮俊 燕湖面 李東衡 金昌鎬 金聲章(安州)

民大安城郡部 進行方針決定

京畿道安城郡選出 民立大學發起人諸氏가 民大期成會安城郡地方部準備會를 組織하고 發起人을 募集한바 同郡十二面有志諸氏는 크게 贊同하야 發起人이 百二十餘名에 達하얏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去五日午後一時 安城敎育會館事務所에서 發起人總會를 開하고 發起人諸氏가 一齊同하야 臨時議長에 金相天氏 司會로 閔泳普氏의 熱熱한 趣旨說明과 金東歡氏의 期成會前後經過報告가 有한後 滿場一致로 朝鮮民立大學期成會安城郡地方部를 組織하고 左와 如히 任員選擧와 會務進行에 對한 決議로 同五時에 閉會하얏다더라

◇決議案

一, 朝鮮民立大學期成會趣旨와 同創立總會決議案에 贊同하야 本郡地方部를 組織할事

二, 本郡住民一萬三千餘戶를 全部會員으로 網羅하기 爲하야 委員及資務員은 其區域을 分擔하야 趣旨를 宣傳하고 會員募集에 盡力할事

三, 會金은 會員의 資產程度와 誠意如何에 依한바 現金又는 物品으로 徵收할事

四, 會金은 收合되는대로 會金保管委員의 名義로 湖西銀行安城支店에 任置할事

五, 本郡陽城, 竹山郵便所附近各面에서 收合되는 會金은 該地郵便所에서 湖西銀行安城支店振替貯金口座에 拂込할事 (但拂込料는 加入者가 負擔하기로 同銀行에서 自進承諾하다)

六, 本郡地方部組織에 對한 費用은 發起人이 負擔할事(下略)

◇任員

執行委員長 朴承六

常務委員 金台榮

執行委員 邑內面 金相天 閔泳普 金濟弘 金秉默 金相衡 李承春 尹喆周 宋圭衡 金學春

寶蓋面 兪鎭復 李寅興 鄭奎普

金光面 金喆植 兪容稷 柳遠秀

瑞雲面 兪成穆 李炳玉 洪淳元

薇陽面 趙錫夏 鄭寅爾 趙錫夏

大德面 柳貞秀 洪忠容 柳海宗

陽城面 李鳴奕 吳潤根 安聖均

孔道面 李元和 南吉祐 尹觀熙

元谷面 崔恒鎬 李奉圭 柳仁根

一竹面 趙亟九 尹興林 辛鍾普

二竹面 李遠昇 沈文澤 朴變和

三竹面 李範植 李承稷 李起稷

監查委員 鄭榮根 朴喜鼎 金泓 鄭鍾斗

會金保管委員 朴承六 韓宇東 崔秉禧 朴弼秉

資務員 一百七十八人(各里一人式)(安城)

工資調達狀況
特殊機關의 必要

平壤에서 朝鮮人의 工業은 거의 小工業이오 大規模의 工業은 殆無한데 그 資金調達은 거의 金融組合을 利用하는지라 最近調查에 依하건대 平壤의 金融組合과 朝鮮人의 機關인 北金融組合의 三個所인데 그 運轉資金은 南金融組合이 三十五萬四千八百六十一圓이오 北金融組合이 二十五萬圓인데 商工業資金으로 貸出된 金額은 如左하더라

一, 平壤南金融組合

商業資金	九七,八三六圓
工業資金	一〇,七〇一圓
雜資金	一二五,五九九圓

二, 平壤北金融組合

商業資金	一三七,〇〇〇圓
工業資金	二七,〇〇〇圓
雜資金	八六,〇〇〇圓

그런대 工業資金中 小工業資金이 占한 資金의 割合은 約一割이 되는 모양이며 此金融組合加入者中 全組合員에 對한 小工業者의 加入割合은 南金融이 約二割, 北金融이 約一割이며 平壤小工業者全部에 對한 加入者의 割合은 約一割可量이 되는 모양이라 그 資金借入의 方法은 擔保借入과 無擔保借入의 二種이 有한바 擔保借入은 生產品을 擔保로하고 借入하는 事는 無하며 不動產을 擔保로하고 借入할 時는 時價의 六割까지 借入할수가 잇고 一口의 借入高는 千圓以內, 期間은 六個月以內, 利息은 日步五錢이며 返濟期日이 될 時는 金額을 返納하든지 又는 換書를 하는 것이오 無擔保借入도 連帶借入이나 個人借入을 勿論하고 大略前述한 條件으로 借入하는데 金融組合에 加入한 人으로 相當한 擔保物件이나 又는 信用이 確實한 連帶保證人이 有하면 資金借入에 別段困難이 無하나 其他의 人은 容易치 아니한 모양이라 平壤에서 小工業者도 貸金業者 其他金融機關利用의 狀況을 보건대 平壤市內의 貸金業者는 四十四名이며 其資本金은 六十九萬三千圓이오 그外 「無盡講」이 百十五個所인바 其掛金은 三十萬三百六十圓이라 小工業者의 此資金借入狀況方法은 大略前記金融組合에서 借入하는 方法과 同一하며 一口의 借入高는 別段一定한 制限이 無하나 普通一千圓以內로 하고 期間도 普通六個月以內이며 利息은 百圓에 對하야 一個月最高三分 普通二分五厘인바 現下形便으로는 財界가 不振함으로 一般金融業者는 專혀 回收에 努力하고 小工業者의 資金借入은 極히 困難한 形便이라 그리고 資金需要의 季節은 一年을 通하야 春秋가 最多하고 冬夏季에는 比較的 減少되며 資金調達上 改善을 要할만한 事項을 擧컨대 平壤府內에서 金融機關으로는 銀行과 몃 金融組合인데 金融組合에서는 組合員이 아니며 絶對로 貸出치 아니하고 銀行에서는 年賦償還五千圓以下의 小工業者에게는 小口貸出을 하지 아니함으로 小工業者는 不得已個人貸金業者(高利貸金業者)에게 借入치 아니치 못하게 되는지라 그라고 그 金利는 高하야 小工業者가 打擊을 受함에 至하나니 故로 爲先個人貸金業者의 利率을 制限하든지 又는 下層的工業者를 爲하야 特殊金融機關을 設置할 必要가 잇다 小工業者는 前述함과 如히 資金調達上의 困難이 多함으로 못처럼 事業을 開始하야도 繼續키 不能하고 드듸여 失敗에 終하며 艱辛히 事業을 繼續하는 者라도 資本家의 信用을 失함에 至하나니 實로 遺憾이라 아니할수 업더라(平壤)

平南麥作狀況

本年度平南管內에 在한 麥作狀況을 들으면 昨年冬季氣候의 不調로 大麥은 不良하나 小麥은 例年에 比하야 良好하다 觀測되더라(平壤)

弊風矯正決議

平壤耶蘇敎長老敎會에서는 敎會內의 弊風을 矯正하기 爲하야 平壤都諸職員에서 如左한 決議를 하고 지난 六日 그 條文을 各敎會信徒에게 發布하얏더라

甲, 送栄에 關한 것

一, 送栄할때에 禮物을 반드시 朝鮮物產으로 하되 簡略儉素하게 할 것

二, 送栄할때에 諸賓하는 일을 廢止할 것

三, 送栄할 時 扶助하는 일을 廢止

乙, 婚宴에 關한 것

一, 婚宴時에 큰床과 큰머리를 一切廢止할 것 다만 그날 需用할 飮食은 任意로 할

二, 飮食도 루는 일을 廢止할 것

三, 扶助하는 일을 廢止할 것

丙, 喪禮에 關한 것

二, 喪家에 輓章, 花環等類의 贈儀는 絶對廢止하고 其他物品等은 形便에 依할 것

三, 葬禮는 永訣場所外지 限行할 것

丁, 生活上日用品에 關한 것

一, 옷감은 비단과 布木을 勿論하고 全部朝鮮物產으로 하되 儉朴히 할 것

二, 男女學生의 校服帽子 등기等은 할수 있는대로 朝鮮物產으로 하고 奢侈品과 不必要한 「메리야스」 等은 一切廢止할 것

三, 日用品으로부터 家藏什物을 모다 朝鮮物品으로 할 것

戊, 社交에 關한 것

一, 歲末에 선물하는 것과 歲初에 年賀狀보내는 것을 廢止할 것

二, 一般卒業式에 禮物을 絶對로 廢止할 것

三, 一般交際의 宴禮는 節約하야 懇親의 뜻만 表할 것 (平壤)

平壤電車展覽餘興

來二十二日부터 開催할 電車展覽會는 期日이 漸迫하야 各部에서는 準備에 奔忙을 極하는데 餘興部에서는 餘興種目을 如左히 決定하얏다더라

一, 妓生演藝 九雲夢 南征記 平壤歌等二十餘種

二, 大同江觀火大會

三, 脚戲大會 慶上里運動場에서 五月三十日, 三十一日兩日間 脚戲會를 開催하되 賞品은

大人 一等賞 大牛一頭 二等賞 廣木一疋 三等賞 日木一疋 四等賞 洋傘一柄

靑年 一等賞 中牛一頭 二等賞 玉廣木一疋 三等賞 타올二打

四, 美人搜索 美人을 變裝케하고 地域을 定하야 懸身케한後 何許人이든지 搜索한 人에게 賞을 與함 (平壤)

人事相談의 各項

今年四月平南道令으로 各警察署에도 人事相談所를 設置하기로 된바 平壤警察署에도 五月一日부터 人事相談所를 設하고 執務를 開始하얏는데 그 業務事項은 如左하더라

一, 精神上問題 身上相談, 家族及親族間爭議에 對하야, 親族搜索願에 對하야, 戶籍上手續, 他人과 感情爭議에 對하야

二, 職業上問題 求職, 內職을 求함에 對하야, 特種의 求職, 職業上取引爭議, 營利에 對한 顧雇手續等

三, 雇傭上의 問題 雇主及被雇人에 對한 一般

四, 感化保護上의 問題 不良少年少女의 處置, 低能兒處置, 子女取戾, 精神病者處置, 病者救療, 窮民救助

五, 衛生上問題 塵埃處理場의 移轉, 煤煙防止

六, 住宅又는 工場에 關한 問題 貸家人側, 家賃延滯又는 退去를 不肯함에 對하야, 其他借家人과 爭議에 對하야 借家人側, 家賃增額又는 退去를 迫함에 對하야, 貸家又는 貸間을 求함에 對하야

七, 其他問題 金錢貸借에 對하야 預金의 爭議, 物件賣買其他契約에 關한 爭議, 治療費請求, 橫領被害, 詐欺被害, 恐喝被害, 結婚媒介의 被害, 無盡被害, 關係社債의 月賦購入에 關한 被害에 對하야, 信用調査, 生命保險契約爭議, 土地貸借, 土地境界, 地貸에 關한 爭議, 他人의 居所住所取調, 離婚間의 婦廢業에 對하야 等 (平壤)

平壤公設市場物價

最近平壤司倉公設市場의 重要物價는 如左하더라

▲白米 一斗 二〇〇, 下一, 八〇 ▲粟 二斗 一,五〇〇 ▲大豆 一斗 一,四〇〇 ▲小豆 一,三〇〇 牛肉 一斤上 四〇〇 下 三〇〇 ▲豚肉 一斤上 三五〇 ▲金巾 九龍一疋 一,三二〇 金閣一疋 一,一五〇 〇四石一疋 七,七〇〇 ▲英綿 一疋 六,六〇〇 ▲官紗 一兩 四七〇 ▲砂糖 一斤 一九〇 ▲再製鹽 一叺 三,〇〇〇 原鹽 一,六〇〇 ▲溫飯 一器 〇八〇 ▲石魚 一束 二〇〇 ▲刀魚 一尾 〇八〇 ▲理髮料 高等 二五〇 普通 一八〇 (平壤)

九成學校寄附金

平南龍岡郡臨谷面九成里 九成學校는 同里民의 經營하는바인대 今般 當地有志 盧弘喆外六人의 發起로 左와 如히 義捐金을 募集하야 二十餘間의 校舍를 新建하는 中이라더라

五十圓式 任能禧 金秉觀 金元亨 李炳國 四十圓式 金元昰 金仁植 一百圓式 金元模 元陽谷面廣川里一洞 六十圓 金亨涉 三十圓式 金明俠 韓弘哲 宋昇煥 金亨晶 金亨獻 金熙鎭 二十圓式 宋燮煥 李用洛 金世稷 金亨龍 金亨淑 宋國煥 李鍾元 金順洙 梁大楨 洪普範 金元高 金昌錫 二十圓 洪普河 十五圓式 梁世周 宋仁鳳 權楨禹 十圓式 崔延敏 韓禮錫 玉崔鏞 頭金元學 車命奎 高鎭奎 李志敦 車益乎 任仁溥 金錫徠 任弘溥 任鼓模 金弘基 金利善 鄭能官 吳鳳根 崔允占 英大根 任鼓根 五圓式 任炳瑞 崔方光煜 四圓式 金官洙 李文化 金洛與 李鍾煥 盧大根 李鍾協 梁大健 宋亨模 金錫龍 吳相根 金熙鈞 劉致務 二李浩龍 (以下略) (龍岡)

安州貿易會社開業

過般 創立된 安州貿易株式會社는 五月一日부터 開業하얏는데 綿糸綿布其他商品은 모다 直輸入한 것으로 一般小賣商에게 供給하는 中이라더라 (安州)

南浦어린이날宣傳

鎭南浦府天道敎少年會의 主催로 去五月一日 「어린이날」을 宣傳하기 爲하야 同日午後三時부터 自働車로 全市를 巡回하며 兒童에게 關한 宣傳文을 配付하고 同夜에는 當地天道敎堂內에서 大講演會를 開하고 與土 高仲賢氏는 「어린이를 잘 指導하기 爲하야」란 問題로 洪愛?氏는 「兒童研究에 對하야」란 問題로 各熱辯을 試하얏더라 (鎭南浦)

開城郡民大運動會

開城高麗靑年會의 主催로 去六日午前十時부터 當地鐵道公園內에 開城郡民聯合陸上競技大會를 開하얏는바 運動科目은 三十餘種에 達한 中 特히 觀衆의 視聽을 聳動한 것은 四十週自轉車競走와 土城驛往復마라손競走인데 自轉車競走 一等은 朴聖根, 마라손競走 一等은 李順鳳君이 各々優勝의 成績으로 一等賞을 占하얏스며 當日觀衆은 一萬五千名에 達하는 盛況이엿스며 午後六時半頃 無事散會하얏더라(開城)

어린이날少年會成

去一日 어린이날을 期會로 하야 當地天道敎會堂에서 天道敎鐵山少年會創立總會를 開하고 朴英根氏 司會下에 鄭正燮氏의 趣旨說明과 規約通過가 有한後에 職員을 左와 如히 選擧하얏는데 어린이의 活動은 當地初有의 事로 當席에 入會한 會員이 合一百二人이더라

指導委員 朴英, 鄭正燮, 鄭九錫 專務委員 金永淵, 金昌朴, 興文, 鄭九成, 金宗順 (鐵山)

利川女子夜學擴張

利川女子夜學은 利川靑年會의 經營으로 去四月부터는 規模를 一層擴張하야 中央에서 貞女敎師를 延聘하야 每週月火水金曜日 每夜下午七時半부터 九時半까지 每通課程을 敎授하는 中이며 張顯星女史와 金容熙氏는 熱心으로 敎授하는 中인바 現下出席生이 三十餘名이오 志願者가 日增한다더라(利川)

●宜川英語夜學中止 宜川英山病院長 池敦氏가 一般에게 英語를 普及케 하기 爲하야 夜間을 利用하야 從來 敎授하야 오든 英語夜學은 近來夜間의 時間이 短함으로 去四月二十七日부터 一時放學하얏는데 九, 十月頃에 更히 開學한다더라(宜川)

●三千浦講習父兄會 慶南三千浦面梨琴里 龍山講習所에서는 去二日 學父兄會를 開催하고 講習所運行方針에 對하야 協議하얏더라 (三千浦)

●消防組春季演習 馬山消防組에서는 五月四日에 一二三部의 組員이 聯合하야 馬山警察署前廣場에서 春季演習을 行하얏더라 (馬山)

●飯尾知事管內巡視 黃海道飯尾知事는 地方狀況視察次로 道內各郡을 巡回하는 中이며 去三日 當地에 來着하야 公立普通學校에서 當地有力者諸氏와 懇談會를 開하고 意見交換이 有한 後 翌日自動車로 安岳에 向하얏더라(長淵)

●萬東校生修學旅行 忠南江景私立萬東學校에서는 去四日에 男子部學生百六十名과 女子部學生五十一名이 全州에 修學旅行을 하얏다가 翌五日에 無事歸校하얏더라(江景)

禁酒와 斷煙

禁酒斷煙同盟會

平北江界郡從南面長坪洞新洞에서는 當地有志의 發起로 禁酒斷煙同盟會를 組織하엿는데 會員은 四十餘名에 達하며 違約者에게는 罰金을 徵收하기로 하엿고 任員은 會長 桂芝泳 副會長 劉昶龍 李采燕 總務 李日華 田鳳奎이더라 (江界)

松底里禁酒斷煙

平南平原郡肅川面松底里에서는 里內有志諸氏의 發起로 今般 禁酒斷煙會를 組織하고 一般里民이 實行中이라는데 任員은 如左하더라

會長 金萬奎 書記 金鎭渥 會計 金秉健 (肅川)

琴瑟浦斷煙同盟

濟州島大靜面下摹里有志 李泰元 鄭基成 金千吉 金壬吉 諸氏의 發起로 斷煙同盟會를 組織하야 會員一百餘人이 每月金二十錢以上을 貯蓄하야 後日公共事業에 補助하기로 하얏다는대 同里老年界에서도 贊從하야 煙管을 棄却하고 實行中이라더라 (大靜)

金海春期大運動會

時日 五月二十日

場所 金海合成學校運動場

會費 一 五拾錢

主催 金海靑年會

後援 東亞日報金海支局

大阪市北濱 參天堂 合資會社

눈병을알는이의 마라손레ー쓰

大學目藥은 其決勝点!

効能

열살이하의소아에는소아용대학목약이잇소

돌님눈, 도라흑, 상렬한눈, 삼눈, 풀어진눈, 피진눈, 희미한눈, 닭친눈, 피로한눈, 그 외 모든 염성증

手淫亂行 房事過度 은 陽氣不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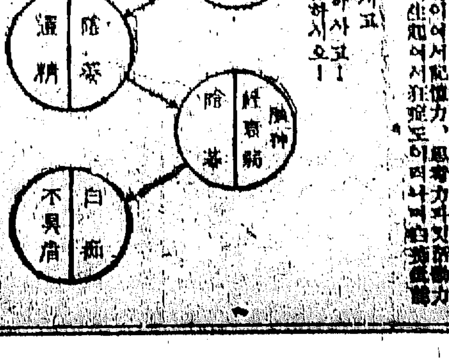
斯界名醫 山口博士가 證明한

노이루錠

◎누구던지 靑少時代에 一次式 經驗하는 手淫

◎左便에 示한 經路를 詳細히 討究하시고 前途의 幸福을 爲하야 노이루錠을 服用하시오!

◎「노이루錠」의 効力과 他藥의 虛無한 宣傳!



注文上 必要한일 一 二 三 四

主治効能

生殖器能衰弱 陰萎, 早漏, 遺精, 夢精

腦神經衰弱 腦病, 神經痛, 히스테리, 不眠症

陽氣增進 老衰, 貧血, 精力增進

藥價 二十錠 二圓 三百錠 五十錢 / 五圓 一千二百錠 十五圓(大用)

本舖 東京市京橋區新榮町四丁目一番地 仁命堂大藥房